



순창군이 강천산음용천수를 활용한 동굴형 힐링체험공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어 강천산주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천산 동굴형 힐링공간 조성

강천산음용천수 활용 안개분수 · 경관조명 족욕 · 성찰공간 등 설치

순창군이 강천산음용천수를 활용한 동굴형 힐링체험공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어 강천산주변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2017년까지 24억원을 투자해 청계리 781?1 번지 일원에 1,000㎡ 규모로 조성되는 동굴형 체험시설을 본격 착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 대표관광지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천산 주변 관광자원을 강화해 강천산을 전북 토탈관광 사업의 남부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이번 동굴형 체험시설은 동굴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태고적 신비로운 분위기를 창출하고 그 안에 순창

의 좋은 물을 활용한 다양한 힐링과 치유 공간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전략이다. 동굴 내부에는 안개분수를 설치해 신비한 느낌을 유도하고 벽과 바닥, 천장에는 경관조명등을 설치해 치유의 느낌을 강조할 계획이다. 치유의 샘은 동굴형 체험시설의 핵심이다. 이곳에서 맑은 물과 좋은 순창 음용천수를 마시고 체험할 수 있다. 또 치유관광자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증완화와 면역력증진 당초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게르마늄 치유공간도 만들어 관광객이 관광에서 치유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족욕 및 성찰공간도 특징 있는 관광

시설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군은 최근 설계를 마무리 하고 본격 착수에 들어갔으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 내년 말에는 동굴형 체험시설을 완공해 강천산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순창군은 순창의 좋은 물과 농산물을 활용해 만성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관광을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이며 최근 건강장수체험과학관을 본격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식생활 실천관, 의농업전시관을 완공해 운영 준비에 들어가는 등 치유관광 추진에 본격적 속도가 붙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교육지원청은 고창발명교육센터를 주축으로 창의적인 융합인재양성에 매진한 결과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교육지원청 융합인재양성 큰 성과

발명영재반 · 특허반 조직 교육기관 발명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국재)은 배움과 나눔을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의 비전을 가지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인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고창발명교육센터를 주축으로 창의적인 융합인재양성에 매진한 결과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 서있는 고창발명교육센터(담당 노희현)는 발명영재반 및 특허반을 조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발명·특허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을 책임져 나갈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첫째,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으로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IP-School에 고창영재 및 발명심화반 과학발명전문 사이트를 구축하여 현재 5개 발명특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원으로 올해 신설된 중등 과학발명영재반 전원을 대상으로 2차 3일동안 전학생이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특별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고 있다. 셋째, 지난해 우리청과 MOU 체결한 지식재산센터 지원으로 초등 발명영재반 전원이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전자출원과정을 전액 무료로 지원받고 있다. 넷째, 201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중인 중등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특허청 발명교육센터 전액지원으로 창의성 발명 직업체험과정을 지원받았다. 마지막으로 대한변리사회의 지원으로 매년 우수 학생 아이디어가 산업지식재산권에 등록될 수 있도록 무료변리지원사업에 신청하여 2016년 현재 고창관내 학생들이 출원 및 보유하고 있는 특허만 350여건에 이른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임산부 대상 단맛 줄이기 교육

19일까지 67가구 115명 대상

순창군이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 집니다 라는 주제로 임산부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67가구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미각키트 5종을 이용해 나의 단맛 정도 알아보기 등을 실시해 실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당을 좋아하고 섭취하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추진한 교육은 영양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부 및 출산부, 영유아 중 영양평가를 거쳐 영양취약계층으로 판정된 대상에게 월마다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순창군은 특히 당뇨섭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 인구의 각종 질병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사업

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교육에 참석한 쟁치면 김모씨는 "잔 것에 대한 인식은 많이 알고 저염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 단맛에 대해 너무 관대했던 것 같다"며 "이번 저당과 교육을 통해 단맛에 대한 건강한 활용법 및 가족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순창군은 영양플러스 교육을 통해 매월 주제를 달리하며 편식, 빈혈, 저염식, 유아간식, 이유식, 조리실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영근 순창보건의료원장은 "순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영양플러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에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대상자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영양플러스사업 문의는 건강증진담당자(660-5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전북 사회조사 실시

순창군 전북 사회조사 실시

순창군이 전북도와 함께 지난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북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조사는 예년과 달리 전라북도 순창군이 공동주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800가구에 사는 만5세 이상 가구원에게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통합 등과 함께 도와 군의 관심사항에 대한 특성항목을 면접 조사하게 된다. 군은 이번 사회조사를 위해서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등 19명을 채용하여 17일 자체교육을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이번조사를 통하여 군민이 군민의 삶과 관련한 의견을 들어 군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식육취업소 특별위생점검

남원시는 최근 식육 취급업소에서 불량 식육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과 식중독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다가오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3주간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식육 취급업소 33개소에 대해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2개반 4명의 점검조를 편성하여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보존 기준에 맞지 않은 식자재·무표시 식육제품 사용여부, 칼·도마의 구분사용 및 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가격표에 표시된 중량 제공여부, 식육 100그램 당 가격 표시여부,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상태 및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 등이며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육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사항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이 특별점검인 만큼 충분히 현지시정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 기한을 주어 자진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나, 식품위생 관련하여 개선 여지가 없는 고질적인 업소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청년지원 사업 '어쩌다 청년' 본격 추진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문화융합 스톱비즈니스 청년지원 사업 '어쩌다 청년'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원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포럼 및 문화예술교육, 창업지원 등 다방면으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청년중심의 지원 사업이다. 청년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전문적인 문화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문화 사업에 관심이 많고 창업의지가 있는 남원관내 거주 중인 청년들로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31일까지이며 결과는 개별연락으로 통보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063-635-001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남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3년차를 맞이하여 5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사업 외에 소리를 주제로 하는 도시문화 포럼과 문화융합 스톱 비즈니스를 통하여 청년들과 함께하는 남원 문화도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북도정구협회 순창군에 쌀 기탁

전북도정구협회 신동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지난 20일 순창군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kg 70포를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난 7월 20일 전라북도정구협회장 취임식때 접수된 쌀이다. 정구협회는 도내 정구선수단이 가장 활성화된 순창지역에 쌀을 기탁하기로 결정 한 것. 이날 신동식 회장은 기탁식에서 "정구인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쌀이 순창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정구협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순창에서 선수, 임원, 지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 참여자들이 함께 정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는 등 전라북도 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 선발

관내 중소기업 기능직 종사자

남원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6년도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지난 15일 현재 등록기준 또는 주민등록이 남원시로 되어 있거나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취업일 기준 만 18세에서 30세인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원이 5명 이상인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체에 6개월 이상 기능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접수기간은 8월 25일부터 31일까지이며, 해당업체 대표의 추천을 받아 남원시 경제과로 구비서류를 등기우

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고, 선정인원 초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추석 전 1인당 1백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기능직 기피현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힘든 근로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경찰 안전띠 착용 집중단속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홍) 부안파출소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띠 착용하기, 정지선 지키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중점 단속 대상은 운전석과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과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사망률 비교 결과,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안전띠 착용했을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3.7배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올 상반기 고창 관내 안전띠 착용률 및 정지선 준수를 조사 결과 전북 평균보다 낮아 교통사고 발생 및 인명 피해를 이 높은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

여 22일부터 10일간 '안전띠 착용하기, 정지선 지키기'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1개월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중점 단속 대상은 운전석과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과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고명희 소장은 " '귀찮다', '답답하다'며 안전띠를 매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띠는 생명띠입니다. 안전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계도·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체육회 임원 워크숍 개최

고창군체육회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선운산유스호스텔 일원에서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 4월 27일 공식 출범한 고창군체육회의 책임의식과 소속감 향상을 통한 친목과 화합을 위해 임원 및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초대 회장인 박우정 군수와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중 사무처장의 특강 등을 통해 역량강화 및 화합의 자리를 가지며, 둘째 날에는 선운산 일원에서 주변 자연경관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랑 실천과 새로운 형식의 간담회로 체육회와 군정발전 방향 등에 대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언제든 위기와 변화의 시기가 오더라도 변방이 아닌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창인으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